

SK·LG 통신비정규직 투쟁 승리, 두 노동자 80일 만에 땅 밟아

✎ 홍미리 기자 | ⓒ 승인 2015.04.26 19:57

다단계하도급기사 센터 정규직 전환·노조활동보장·노동시간단축·임금체계개편



▲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장연의 조합원과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강세웅 조합원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광고탑에서 80일간 벌여왔던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크레인을 타고 내려와 땅에서 함께했던 조합원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통신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개월간의 파업과 고공농성 등 온갖 극한의 투쟁을 벌인 끝에 승리를 거머쥐었다. 장연의·강세웅 두 노동자는 중앙우체국 앞 광고탑에 오른 지 80일 만에 땅을 밟았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과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391일 만에 승리를 이뤄냈다.

두 노조는 각각 회사 측과 다단계 하도급 기사들을 센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고, 살인적 노동시간을 줄이며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성과를 거뒀다.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과 연대, 승리와 미래를 위한 한마당’이 4월 26일 오후 2시 중앙우체국 앞 고공농성장에서 펼쳐졌다. 두 노조는 최근 회사 측과 각각 표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4년 3월 30일 지부를 결성한 후 총파업과 고공농성 등 투쟁을 벌였고, 4월 17일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어 4월 19일,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6개월이 넘도록 이어온 집중교섭의 결과물인 잠정합의사항에 대해 논의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추인하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2.7% 찬성을 얻어 가결시켰다.



▲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등 희망연대노조가 서울중앙우체국 앞 광고탑 고공농성장에서 승리보고대회를 진행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두 노조는 표준임금과 단체협약안에 근거해 각 센터별로 후속교섭을 진행, 대부분의 센터에서 타결됐으며 미타결지회 마지막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은 4월 26일 오후 2시 고공농성장(중앙우체국)에서 전국 조합원이 집결한 가운데 승리보고대회를 진행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80일 간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벌인 장연의·강세웅 두 조합원농성을 해제하고 크레인을 통해 내려왔다.

땅을 밟은 두 노동자는 그동안 어렵고 힘든 투쟁을 함께 해 온 동지들을 만나 얼싸 안았다. 노동자들이 위를 바라보며 두 동지를 부르자 고공의 노동자들이 마이크를 잡고 내려오기 전 감회를 밝혔다.

“장연의동지! 강세웅동지! 우리가 함께 합니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연대팀장 장연의다. 감사드다. 어제 저 밑의 나무에 싹이 튼 걸 봤다. 봄이 왔지만 제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았던 것 같다. 타결소식을 듣고 내려가기로 결정했을 때 지난 2월 이곳에 오를 때가 생각났다. 작년 이맘때 저녁에는 일찍 들어가 가족과 쉬고 싶고, 점심시간이 되면 남들처럼 점심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으로 노동조합을 시작했다. 그 후 수많은 탄압과 해고가 있었다. 싸우는 과정에서 제가 비정규직이고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걸 알게 됐다. 10년 간이나 일하면서도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 싸워야겠구나, 내가 그렇게 당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착취 받고 있었구나 생각했다. 제 자리에서 열심히 뛰었다. 후회하지 않게 싸우고 싶었다. 함께 해준 이들, 모두 감사드린다. 동지들 고맙다. 너무 수고하셨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조직부장 강세웅이다. 그동안 함께 해 준 모든 분들 정말 고맙다. 내려가도, 파업이 끝나도 우리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많은 이들,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100배는 더 힘들다고 했다. 우리 조합원들이 저 매섭게 추웠던 겨울을 잘 버텼다. 그 힘찬 내공으로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저와 우리 모두는 희망연대노조가 낳은 자랑스런 전사들 투사들이다. 파업을 하면서 배운 것,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 삶은 더불어 함께 할 때 가치가 있다는 것, 그런 진보적인 가치들을 일상에 돌아가서도 각자 모두 활동가가 돼서 주위에 전파하자. 그렇게 내 편을 만들자. 내 편이 많아지면 우리가 원하는 좋은 세상이 빨리 올 것이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보여준 연대의 마음, 함께 산다는 마음으로 정진할 것이다.”

땅을 밟기 전 두 노동자는 그동안 함께 한 노조 간부들과 연대단체 성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 소중한 연대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잠들어있는 노동자여 깨어나서 투쟁하라!”

“강고한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이날 승리보고대회에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비롯해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당인, 진짜사장나와 라운동본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등 연대단체 대표자와 성원들도 참석해 승리를 축하했다.

장연의, 강세웅 동지는 경찰, 변호사와 함께 원진녹색병원으로 이동했으며 병원에서 조사와 치료를 받는다.



▲ 통신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 비정규직 권리보장 위한 노조결성한지 391일 만에 승리를 이뤘다. © 변백선 기자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